

## “Power of Incheon Citizens Will Forge New History”

“시민의 힘으로 인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Dear fellow citizens of Incheon. Happy New Year to you all! This year is the year of the blue sheep. As blue represents progressiveness and the sheep represents peace, the blue sheep was regarded as fortune bringer to people's domestic and public lives. So, may that good fortune always be with you all throughout this year.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our future depends on the creative assets of our city and its citizens. Based on these assets, we will create new possibilities to advance into a brighter future.

Most of all, a more active economy will help create richer lives for all. The city government will set specific action plans for the eight major strategic projects for engines of long-term economic growth, including robot, automobile, tourism, marina, and service sectors. Also, the city will strive to successfully hold major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President's Cup, World Book Capital, and World Education Forum, to cultivate MICE industries and create more jobs for the citizens.

Second, Incheon will become a more active international city. IFEZ will be cultivated into a new engine for national growth by enhancing the investment environment. The city will also attract more youke, the Chinese tourists, through strategic planning and differentiated market-ing plans.

Third, Incheon will create its unique value based on its own competitiveness. The new 'Urban Regeneration Strategy Project' will harmonize the old and new features of the city. The 'KTX Incheon Terminus Project' will create the city's own transportation center and secure the city's competitiveness.

And finally, the city government will implement citizen-centered administra-



tion and keep enhancing its communications channels with the citizens. Just like the 'Roundtable Conference' that collected opinions of its citizens, we will set other channels of communication like 'Happiness Policy Advisory Panels for the Citizens,' and 'Citizens Manifesto Supervisors,' to listen to what the citizens have to say about our policies.

Dear citizens, we will create a new history of Incheon with the great power of the citizens. Incheon Metropolitan City will fly even higher in the New Year. Thank you!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양(靑羊)의 해입니다. 진취적이고 평화로운 청양의 기운은 개인과 가정에 큰 행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기운이 우리 인천시와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인천의 창조적인 발전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성장의 기회를 인천의 새

로운 도약으로 확실히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통해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구현하겠습니다. 장기적 경제발전동력인 로봇, 자동차, 바이오, 관광, 마arina, 서비스 등 8대 전략사업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예정된 프레지던트스컵 골프대회, 세계 책의수도, 세계교육포럼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MICE 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역동적인 세계도시를 지향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해 IFEZ를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우커'들을 인천으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과 차별화된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천만의 가치창조에 힘쓰겠습니다. 인천의 근대문화자산과 내향 재개발을 연계해 원도심을 창조적으로 복원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신·구의 조화를 이뤄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천발 KTX 사업' 등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인천 중심의 독자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소통과 참여의 창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지난해 개청 이래 처음으로 개최한 '시민원탁토론회'에서 여러분의 고견을 청정한 것처럼, '시민행복정책자문단'과 '공약시민점검단' 등 다양한 채널을 두고 소통해 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인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을미년 새해, 비상을 위한 인천의 힘찬 날갯짓을 기대해주시고,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January 1, 2015 Yoo Jeong-bok, Mayor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 Photo News



**We Are One!**  
우리는 하나!!

National flags are flying proudly above the square of the Incheon Culture & Art Center, like the colorful and diverse residents of Incheon. Workers, housewives, students, and others who came to South Korea dreaming a Korean dream, put their arms around one another's shoulders and enjoy sharing their diversity of culture, language, and color. The diversity is now giving birth to a whole new culture. As the crossroads of the multicultures in South Korea, Incheon is greeting another year of diversity, opening its gate towards the sea and the sky. In 2015, we are still one.

12월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 만국기가 걸렸다. 화려한 조명을 받아 빛나는 만국기는 국제도시 인천의 현재 모습이다. 근로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만국기처럼 다정스럽게 어깨동무를 한다. 국적과 언어, 피부색의 다름은 문화의 다양성으로 표현된다. 그 다양함은 새로운 문화로 거듭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다문화 시대는 과거 인천에서부터 시작됐다. 바다와 하늘의 길이 세계로 열려 있는 인천에 2015년 을미년의 새해가 밝았다. 2015년에도 우리는 하나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Photograph and article by  
Editor·Kim Min Young·gem0701@hanmail.net

Read Dasarang  
the Multicultural Newspaper  
of Incheon, "Online"

http://www.dasarangnews.com



# Want to Get Massaged?

## 저희 손 맛 좀 보실래요?

'The Caring Hands' Generation', A Volunteers' Group of Ju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손녀시대'



Are you familiar with the song called "Hand in Hand"? It was the theme song of the 1988 Seoul Olympics, representing harmony and equality of humanity. You can hear the song in an entertainment program of the JTBC network, "Non-Summit," whenever the 11 guests from the 11 countries have heated arguments with each other and have to calm themselves. Just like its lyrics say, the song symbolizes the first step of crossing barriers of languages, borders, and cultural differences.

"The Caring Hands' Generation," a volunteer group of the Ju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offers helping hands, just like in the lyrics. The volunteer group offers Thai hand massage for the residents of long-term hospitals and care houses. It's not easy to hold strangers' hands, not to mention massaging them. But the members hold out their hands for 'hand' greetings.



The volunteers felt awkward at first as well, but they soon learned how to reach out and share their hearts. As the job involves touching, it's been easier to form closeness between the volunteers and the residents.

Ms. Gao Na says, smiling, "I've got free education and benefits here in South Korea. Then I thought that I wanted to do something for the people around me as well. Now I can share my heart with these people by offering hand massage. They're like my parents." Even as the interview continues she kept massaging hands and elbows of the residents.

There are 19 members of the "The Caring Hands' Generation," and 10 of them go for the volunteer sessions according to their schedules. It did not take long for the members who are not used to the actual volunteer work to commit themselves to it.

Ms. Xi Fun (Aged 40, China) says: "I like to make others happy. I felt sorry for the sick and elderly, and now I can do something for them with hand massage. I do it for my husband as well. He says it's relaxing." The volunteers are satisfied with what they have learned from the volunteer work. The hand massage also eases tension between the family members, for everyone gets comfortable during a good massage session.

Mr. Jin Min-su, social worker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comments,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hand massage volunteer work. For now, we're concentrating on sending our small number of volunteers to long-term hospitals and care centers, we're going to expand our volunteer worker pools so that we may visit more places in week-days as well."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가 있다. 88서울을 올림픽 주제가이기도 했는데, 세계인의 화합과 평등을 잘 나타내는 올림픽 주제가로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최근 방영중인 JTBC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서도 11개국 청년들의 의견이 분분해 질 때면 화합을 다지는 의미로 '손에 손 잡고'를 부른다. 이렇듯 전 세계인이 손을 잡는다는 의미는 특별하다.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라는 노래말처럼 언어와 국경, 문화차이를 뛰어넘는 첫 걸음이 되기도 한다.

인천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나눔봉사단 '손녀시대'도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 그들은 태국식 손마사지를 배워 한국의 요양병원 등을 돌며 손 마사지 봉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마사지까지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봉사가 아니고 서야 잡을 일이 통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들은 먼저 손을 내밀고 천천히 '손' 인사를 건넨다.

첫 봉사를 나갔을 때는 봉사자들도 어색함에 말을 잊지 못했었지만, 이내 조금씩 마음을 두드리는 방법을 익혔다. 스킨십을 통한 봉사자보니 단기간에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훨씬 수월했다. 무엇보다 마음이 움직인다.

가오나씨 (중국)는 "그동안 한국에서 다양한 무료교육과 혜택을 받았어요. 감사한 마음에 저도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손 마사지로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있

어 기쁘요. 고향에 있는 부모님 같아요."라며 웃어 보인다. 손과 팔뚝까지 정성껏 마사지를 하면서도 힘든 기색 하나 없다.

손녀시대 나눔봉사단은 총 19명이 활동 중이다. 그중 일정에 맞춰 10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 봉사를 나간다. 초창기 이주여성들에겐 '봉사'라는 개념조차 낯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봉사를 몸소 느끼는 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진 않았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어르신들이 편찮은 모습을 보면 맘이 안좋은데, 마사지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껴요." 서분(중국, 40) 씨의 말이다. 그녀는 "센터에서 배운 마사지를 남편에게 해주기도 해요. 시원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라고 전한다.

이렇듯 집에서 시부모님이나 남편에게 직접 마사지를 해줄 수 있어 봉사자의 만족도가 더욱 높다. 평소 어렵던 대화도 손마사지와 함께라면 자연스러워진다. 봉사와 가족 간의 소통문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센터 사회복지사 진민수 씨는 "많은 분들이 손마사지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봉사인원이 많지 않아 요양병원을 집중적으로 나오지만 인원이 늘어나면 주말과 평일을 활용해 다양한 봉사 장소로 찾아갈 예정입니다"라고 말한다.

글·사진 차지은 기자

Photograph and article by Cha Ji Eun · minsable@hotmail.net

## Application Overview of the Hannuri School

### 한누리학교 모집 요강

Incheon Hannuri School is recruiting its new students all year round. Hannuri School is the first national boarding school for immigrant children and children from foreign 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school offers regular and specialized courses so that the children can adapt to South Korean society more easily; after completing the entire courses in one year, the students can return to their original schools. The school also offers regular public educational courses, and the graduates can have equal educational levels as other graduates from South Korean schools.

For admission, download and fill in the Application form and submit the form to the current school of your children. The student's current school should download and fill in the Recommendation form, and fax it to Incheon Hannuri School (Fax No.: 032-442-2108). Please contact Incheon Hannuri School (Call: +82-32-442-2102~4) for more information.

인천 한누리학교가 신입생을 수시 모집한다.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 적응과 교육을 책임지는 한누리학교는 1년 재학 후 원적교로 복귀가 가능한 위탁교육기관이다. 기본 교육과정과 특성화교육과정을 적절히 배치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초, 중, 고등학교와 동일한 학력으로 인정된다. 입학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한누리학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에서 '위탁교육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서는 '위탁교육추천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와 함께 인천한누리학교로 팩스(032-442-2108) 발송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로는 인천한누리학교 (032-442-2102~4)로 문의하면 된다.




# “Let’s Plan Customized New Year Resolutions”

## “내게 딱! 맞는 프로그램으로 신년을 계획하자”

Program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Incheon for the Year 2015  
2015 인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the Incheon area offers you new programs for the year 2015. What do you want to learn or experience most? Find out the best programs that suit you for a fresh start of the year.

인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은 2015년에 진행할 프로그램을 새로이 계획했다. 각 센터별 특색이 반영된 프로그램에는 나와 가족, 우리를 어우러지게 할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내게 필요 정보와 체험프로그램은 무엇일까? 내게 딱 맞는 프로그램 선택으로 2015년을 산뜻한 출발을 해보자.

 **Incheo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will continue its dormitory cleaning & remodeling program for foreign workers, ‘Love Dorm,’ for the year 2015 as well. The Support Center also continues its Korean culture exploration program, a popular program that offers tour of museums and memorial halls to relieve stress and better understand Incheon city for foreign workers. Inquiries : Ahn Heung-soo, Call : 032-431-5757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기숙사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을 넘어 리모델링까지 해주는 ‘기숙사리브하우스’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한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문화탐방도 계획하고 있다. 근무지를 벗어나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찾아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인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문화프로그램으로 매년 인기가 높다.  
문의 : 032-431-5757, 담당 : 안홍수


 **Bupyeo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continues its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in Filipino and English for marriage migrants. And the Mentoring Project will help successful settlement of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with mentors who have lived for more than a year in South Korea, can speak intermediate and higher level of Korean, and can offer valuable insights into Korean culture and living information. The Bupyeong MFSC is still recruiting the mentors. Inquiries : Ryu Eun-Seon, Call : 032-511-1800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필리핀어, 영어 통·번역서비스와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는 멘토링 사업은 멘토와 멘티 모두 결혼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다. 멘토는 한국에 입국한지 1년 이상 된 자로 한국어 중급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문화와 생활정보 등을 먼저 입국한 선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의 : 032-511-1800, 담당 : 류은선

 **Yeonsu-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has prepared the Multicultural Friendship Experience, an integrated program to foster community spirit and mutual understanding amo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Korean families. The four quarterly programs offer various experience activities including picnics at the zoo, mudflat experiences, cooking classes, and skiing camps. The program helps bridge the gaps between the families. Inquiry : Mr. Goo Eun-mo, Call : 032-851-2740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이해하기 동반체험을 준비한다.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이 서로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통합프로그램이다. 총 4회기에 걸쳐 분기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동물원체험과 갯벌체험, 요리체험, 스키캠프 등 다양한 체험을 함께 나누게 된다.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게 할 이번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 될 것이다.

문의 : 032-851-2740, 담당 : 구은모

 **Ju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will expand its “Visiting Services” program. The MFSC will open a multicultural education center at Unnam-dong on Yeongjongdo Island, to offer educational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Yeongjong and Yongyu areas. The MFSC will also run a program, “Parental Education for Healthy Growth of Children” to meet the needs of marriage migrants who have lived for more than five years in South Korea, and offer help in guiding self-directed learning, efficient homework, and curriculum analyses.

Inquiries : Lee Mi-jin, Call : 032-891-1094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섬 지역(영종도) 운남동에 다문화교육장을 열고 영종과 용유지역의 다문화가족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입국 5년 차 결혼이민자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교육’도 진행한다.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주도 학습방법과 효과적인 숙제지도, 교과과정 분석 등을 제공한다.

문의 : 032-891-1094, 담당 : 이미진


 **Gyeonga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runs a monthly program, “Mommy Tells a Fairytale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to cultivate language skills, sensibility, and creativity, at the Pink Dream Library. The storytelling tutor will guide the children through the exciting world of fairytales. Children aged between 6 to 10 years are eligible. The Pink Dream Library was established by the support of Mary Kay Korea and the Child Fund Korea.

Inquiries : Kang Geun-hwa, Call : 032-541-2860-1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이야기’로 언어와 감성, 창의력을 키워 줄 계획이다. 핑크드림도서관에서 매주 1회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동화구연선생님의 이야기와 함께 재밌는 동화나라의 여행이 시작된다. 대상은 유아(6~7세)와 초등(1~2학년)이다. 핑크드림도

서관은 지난해 메리케이코리아와 초록어린이재단의 후원으로 건립됐다.

문의 : 032-541-2860~1, 담당 : 강근화

 **Seo-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operates the “ABC (Age·Behavior pattern·Culture) Integration Project” for multicultural couples to overcome differences in age, behavior patterns, and cultural backgrounds between the partners. The program offers systematic training including “Partners Investigations,” “Live Talks between Husbands & Wives,” and “Children’s Education (P.E. & Arts),” for growth of the family in general. Husbands and wives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 more than 10 years age difference and have children aged between 4 to 13 can apply for the program.

Inquiries : Kim Jin-hee, Call : 032-569-1560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부부를 위한 ‘ABC(Age·Behavior pattern·Culture)통합프로젝트’를 실시한다. ‘ABC 통합프로젝트’는 연령과 행동양식, 문화차이를 극복을 위한 가족성장 프로그램이다. ‘부부탐구생활’과 ‘남편&아내들의 생생토크’, ‘자녀교육(아동체육·미술활동)’ 등 체계적인 학습계획과 내용으로 구성해 온 가족이 함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배우자와 나이 차이가 10세 이상, 4~13세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이다.

문의 : 032-569-1560, 담당 : 김진희


 **Ganghwa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operates the “Talk Together Project (잘 통하는 통(通)통(統)가족 만들기),” to overcome family crises and facilitate communications among family members, schools, and local community. As more than 67,000 residents are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fluent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between the partners has become very important; and the Project offers various small programs including “Together with Teacher and Mommy,” “Together with Mommy,” “Together with Mommy and Friends,” and “Under the Tents.”

Inquiries : Kwon Hee-sun, Call : 032-933-0980

**강화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잘 통하는 통(通)통(統)가족 만들기’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가족간의 위기개선과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관계와 소통이 원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강화에는 6만 7천명으로 다문화가족 증가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그만큼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소통이 중요해졌다. ‘쌔미랑 엄마랑 통통’, ‘엄마랑 아이랑 통통’, ‘엄마랑 친구랑 통통’, ‘텐트 치고 가족끼

리 통통’ 등 다양한 관계에서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문의 : 032-933-0980, 담당 : 권희선

 **Namdo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will run the “Single Parent Family Care Project,” a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crisis supported by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Psychological counseling, tests, and group counseling sessions are provided for the single parents familie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along with parent role education and emotional coaching. The Project will also run family drama therapy sessions and healing camps for better family relationships, and create self-help groups for volunteer works, cultural exchanges, and meeting of the parents within the same lifecycle group.

Inquiries : Kim Seon-a, Call : 032-467-3912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 사례관리 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아 다문화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가족 및 여성가장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와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부모역할교육 및 감성코칭으로 부모교육도 병행한다. 더불어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가족드라마 치료와 힐링캠프를 실시한다. 또한 자조모임을 통해 봉사활동 참여와 문화교류, 생애 주기별 부모모임 등을 가질 계획이다.  
문의 : 032-467-3912, 담당 : 김선아

 **Nam-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will run the “Youth Connection IT-DA of People and Culture (청춘! 사람과 문화를 IT-DA)” event.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 students from the University of Incheon, will offer Vietnamese, Japanese, and Cambodian dishes including pho to the 200 culturally marginalized senior residents. The event will be held at “World of Wonders Space IT-DA (세상의 별의별 공간 IT-DA),” from January 21 (Wed.) to 22 (Thu.). Inquiries : Park Dong-gyu, Call : 032-875-1577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청춘! 사람과 문화를 IT-DA’를 진행한다. 다문화가족과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하는 지역 나눔행사로 베트남 쌀국수와 일본, 캄보디아 음식을 직접 만들어 문화소외계층 어르신 200 명에게 배달할 계획이다. 다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번 행사는 1월 21일(수)~22일(목)까지 ‘세상의 별의별 공간 IT-DA’에서 진행된다

문의 : 032-875-1577, 담당 : 박동규

이연옥 기자

Lee Yeon Ok · yeonog20@naver.com



# Experience Wolmi Culture Center

## 월미전통공원 월미문화관 체험



Ms. Ahn Seo-hyeon, with her daughter, Yoon Ji-hee  
안서현씨와 그의 딸 윤지희양

New Year has arrived. Everyone celebrates the festive season with families and friends, and sometimes it's good to greet your family dressed in decent Hanbok dress. Elegance served at a table by someone in refined Hanbok dress. There's no bigger gift than this.

To enjoy the new season, Ms. Son Aleen and Ms. Ahn Seo-hyeon from the Philippines went to the Wolmi Culture Center, located in the Wolmi Traditional Park, which gives you a chance to explore traditional Korean culture. The Korean Traditional Food & Culture Experience Center holds full-time exhibitions on traditional court and ordinary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as well as special exhibitions. The Traditional Culture Exhibition Hall por-

trays a Korean's life from birth to death. There's a corner for traditional marriage experience, where the participants can try on traditional marriage dresses. Ms. Ahn says, "It's the first time that I ever wore the traditional marriage dress since my marriage in South Korea. I learned some of them then, but it still feels new to come and see it all again. It's good to experience essential knowledge about South Korean lives."

The exhibition continues to the Royal Cultural Exhibition Hall, where you can see a day in the king's life, royal cuisine, and court music. Royal costume experience

is especially popular among the visitors, Koreans and foreigners alike. Ms. Son Aleen tries the queen's costume, putting on the massive hair accessory, a gachae, onto her updo hair. Now it's the long coat-strings, or the goreum, that troubles her. Ms. Son says, "I've learned how to put on a Hanbok, but it's still difficult to tie up the goreum beautifully." Finally a staff member helps her do it. As she shows off her beautiful dress, she smiles and says, "It's really pretty. I feel like a queen in the queen's dress. I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goreum too."

Just like Ms. Son, Ms. Ahn wears a Dangeui, or queen's everyday dress, and takes a picture with her daughter, Yoon Ji-hee (aged 8), who says, "I don't wear

Hanbok that much, except when I go to my grandma's in the Chuseok or Seol. But it's good to take a picture with my mom, wearing the beautiful dress." Now the little girl looks around the king's table and traditional cuisine, listens to the traditional music, and asks her mother: "What do we do next?"

새해가 밝았다. 각종 신년회와 잔치가 이어지고, 가족들이 모여 밥 한끼 먹는 일이 많아지는 때다. 이럴 때, 정갈하게 차려입은 한복과 잘 차려진 한상으로 가족들을 맞이해 보자. 한복과 한 차림 상이 주는 예의. 어른께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

산뜻하게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 이주여성 손알린(필리핀) 씨와 안서현(필리핀) 씨가 '월미문화관'을 찾았다. 월미전통공원 내에 위치한 '월미문화관'은 한국의 전통 생활상과 궁중문화, 한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통문화전시관은 생활문화, 궁중문화, 기획 전시로 나누어 상시 전시되고, 내부에는 상황에 맞는 소품과 한복들이 마련돼 직접 입어볼 수 있다. 특히 생활문화전시실엔 인간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문화행사를 담아 한국인의 일생을 압축시켜 놓았다. 또한 전통혼례복을 입고 혼례체험도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안서현 씨는 "전통혼례복은 한국에서 결혼할 때 입어보곤 처음이에요. 처음 시집을 때 배웠던 것들이지만 직접 보니 느낌이 새로워요. 한국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좋은 곳인 것 같아요."라고 전한다.

궁중문화전시실에선 임금님의 하루, 수라상, 궁중음악과 음식에 대한 전시가 이어진다. 임금과 중전이 입던 한복은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손알린 씨는 중전의 옷을 입고, 가채까지 머리에 얹었



Ms. Son Aleen 손 알린 씨

다. 그런데 여기서 웃고름이 문제다. "한복입는 법을 배웠지만 웃고름은 아직까지도 헛갈려요"라는 그녀. 결국 전시실 직원의 도움으로 웃고름 매기에 성공했다. "예뻐요. 왕비가 입던 옷을 입었더니 왕비가 된 기분이에요. 이제 한복입는 것도 걱정이 없네요"라며 웃어보인다.

안서현 씨도 함께 중전의 당의(중전이 평상시에 입던 한복)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넣고 팔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안서현 씨의 딸 윤지희(8) 양은 "추석이나 설이면 할머니댁에 갈 때 한복을 입는데, 평소엔 많이 안입거든요. 엄마랑 같이 한복입고 사진찍어서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한다. 임금님 수라상과 전통음악 소리, 한국 음식들을 바라보며 윤지희 양이 묻는다. "엄마 이제 뭐 보러 가요?"

글·사진 차지는 기자

Photograph and article by Cha Ji Eun · minsable@hanmail.net



Panorama of Wolmi Culture Center 월미문화관 전경

### Information Piece / 토막정보

## How to Tie Up the Goreum 한복 웃고름 매는 방법

1. Place the long goreum in your left palm, and short goreum in your right palm. (For right-handers)  
긴 고름은 왼손, 짧은 고름은 오른손에 바치듯이 들어준다.

2. Cross the two goreums, with the short goreum on top and long goreum at the bottom.  
오른쪽의 짧은 고름은 고름을 위로가게 하여 X(엑스)자 모양으로 교차시킨다.

3. Pass the short goreum beneath the long goreum, and make a ring by tugging the short one upward. Fold the long goreum into a loop and pass the loop through the ring of short goreum.  
위로 올라간 짧은 고름을 긴 고름 아래에 감아 위로 뺏는다. 이때 왼손으로 짧은 고름을 잡아 둥근 원을 만들고 오른손은 긴 고름을 잡아 고리를 만들어 짧은 고리의 원 안으로 잡아당겨 준다.

4. Tidy up the bound goreums.

마지막으로 두 가닥의 고름을 합쳐서 모양을 정리한다.





# Learn Korean with Your Children

## 아이와 함께 한국어 공부해요

‘Durian’, the Korean Language Learning Website for Immigrants from EBS EBS 다문화 한글교육 사이트 ‘두리안’

You have to speak Korean everywhere – from your house to schools, restaurants, hospitals, and public spaces. But if you do not have enough time to learn the language because you're too busy doing other work or chores, then you could try online Korean language learning. You can study whenever and wherever you like, and you can learn the language with your children. Start from the basics, and you will find yourself speaking fluent Korean with your family members.

The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or the EBS, has launched DURIAN (ebsd.co.kr)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for foreign work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Users can select levels of difficulties for their own choosing, which is good news for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who worry about Korean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The site also offers ‘Learning Korean in Your Own Languages’ sessions, which offers Korean language courses in English, Japanese, Chinese, Vietnamese, Filipino, Bahasa Malay, Thai, Mongolian, Russian, and Cambodian languages, to facilitate learning. There are also ‘Dual Language

courses’ offered in Vietnamese, Chinese, and Japanese, for basic Korea courses for immigrant children.

The levels of difficulty vary to suit your needs, from basic Korean language courses for children to high-level courses including "Learn Korean with K-POP," or "Screen Korean."

You can also learn English on the website, "Woolly Bully Magic English" for children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s rich video materials, from Aesop's Fables, to Pororo, Word Flash Cards, and Science Animations. The "Culture Sharing Place" menu of the website offers information on dramas, documentaries, general education, and cooking.

To use the language courses contents, join in as a member at EBS website (ebsd.co.kr) before accessing the DURIAN website and use its contents for free. To check out your courses, click on the "My Durian" menu on the far right side of the webpage, where you can find Korean cooking recipes and multicuture-related news on the 'Board' Menu.

집에서 시작해 학교, 식당, 병원, 공공장소까지. 한국생활을 하는데 한국어는 필수다. 일하랴, 살림하랴,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온라인 한국어 교육’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기도 손색없다. 무엇보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다. 기초회화부터 고급한국어까지 차근차근 나아가 보자. 어느새 가족과의 소통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는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글 교육사이트 ‘두리안’을 운영 중이다. 대상자가 자유롭게 난이도를 선택해 공부할 수 있어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엄마가 함께 이용하기 좋다. 아이의 한국어 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다문화 가정에겐 희소식일 것이다.

‘두리안’은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모국어로 배우는 한국어’ 강좌가 마련돼 있다. 지원모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말레이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 등 10개국어다.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지원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베트남, 중국, 일본어로 지원되는 ‘이중언어 교육’도 있어 중도입국 자녀들의 기초 한국어교육으로 제격이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 등 아이와 함께하면 좋을 강좌들이 준비돼 있다. ‘K-POP으로 배

우는 다문화 한국어’, ‘스크린 한국어’ 등 기초부터 고급 회화까지 흥미를 유발하는 강좌도 눈에 띈다.

한국어 외에 영어교육도 함께 할 수 있다.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으로 기획된 ‘우리아이 놀이터’는 이솝이야기와 뽀로로, 영단어카드, 과학애니메이션 등 흥미위주의 언어교육 영상이 가득하다. 이밖에도 EBS는 한국 문화를 알 수 있는 ‘문화나눔터’ 메뉴를 통해 드라마, 다큐, 교양, 요리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EBS 회원가입 후 두리안 (ebsd.co.kr) 홈페이지 접속하면 된다. 한국어 배움터에서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모든 강좌는 무료이며, ‘마이두리안’에서 수강강좌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두리안 게시판에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한국요리 레시피와 다문화 소식을 열람할 수 있다.

글·사진 차지은 기자

Photograph and article by Cha Ji Eun · minsable@hanmail.net

## Vodka, a Taste of Russian Culture

### ‘보드카’ 한 잔에 담긴 러시아 문화



from the Russian word for water, "voda," Russians love vodka. The average Russian consumes 60 bottles of vodka annually, based on the Russians' development of a rich drinking culture. In Russia, they always toast at parties; you are expected to drink the first glass that's been offered at parties, whether you like liquor or not. Even if you can't drink, you have to fill your glass with water in order to toast with the others.

Vodka is used for major ingredients of various cocktails as well, because it is like the melting pot of other kinds of liquor, just like its country of origin that possesses colorful cultures. Russia is one of

How will you beat the cold winter of South Korea? While many of you will rely on warm soup or hotpot, Russians rely on their vodka, the traditional hard liquor with over 40% proof alcohol. As the average temperature in winter is about -10°C in Moscow, vodka is considered essential for the Russians to warm up their bodies. Russians drink the liquor like water, just as the name "vodka" was derived

the most famous multiracial countries in the world, and has a deep and rich legacy of literature and classical arts including ballet and opera, all of which are still popular in the country.

한국의 겨울. 이렇게 추운 날씨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뜨끈한 국물요리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러시아의 겨울은 다르다. 추운 날씨를 버티기 위해 그들은 ‘보드카(vodka)’를 선택했다. 수도 모스크바를 기준으로 겨울 평균기온이 영하 10도에 이르는 추운 날씨에서 러시아 사람들은 알코올 40도 이상의 보드카로 몸을 데웠다. 러시아에선 보드카를 물처럼 마신다. 보드카라는 이름도 러시아어로 ‘물’이라는 뜻의 ‘voda’에서 따온 것이다. 러시아인 한 명이 1년에 소비하는 보드카의 양이 60병에 달한다고 하니, 그들의 보드카 사랑은 두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다. 그만큼 애증문화도 발달했다. 술자리에선 항상 건배를 한다.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라도 첫 잔은 꼭 비우는 것이 예의다. 한 잔도 못 마신다면 물을 따라서라도 건배해야 한다.

보드카는 카테일의 재료로 자주 만나볼 수 있다. 성질이 다른 주류와 조화가 잘되기 때문이다. 보드카의 나라 러시아도 다양한 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러시아는 다민족의 문화가 풍부하게 어우러진 나라로 유명하다. 특히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다. 문학작품은 물론 ‘발레’와 ‘오페라’같은 클래식한 예술도 러시아에서는 누구나 즐기는 대중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글·사진 차지은 기자

Photograph and article by Cha Ji Eun · minsable@hanmail.net

Russian Vodka / 러시아 보드카 문화



# Always ON AIR for the Filipinos

## 필리피노들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ON AIR'

Gennie Kim, Communicator 커뮤니케이터 제니 김 씨



No pain, no gain. While it is still painful to adapt to the different culture in foreign lands, it makes you grow up fast. Communicator Gennie Kim has endured the same pain, and she is now helping others like her to go through the process. Let's find out what she has to say about her ON AIR life.

누구나 어려움을 겪어 낼수록 성장한다. 낯선 이국땅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적응을 하는 과정 역시 성장의 일부이다. 그 과정을 겪어 내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제니 김 씨는 또 다른 '자신'들에게 손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필리피노(필리핀인)들의 커뮤니티로 활동하는 그의 일상은 오늘도 거침없이 'ON AIR' 다.

### I am a Filipino Communicator.

Gennie Kim (Aged 37) is a well-known figure in the Filipino community in South Korea. She is vice president of the FKSA, and also works for the Filipino EPS Workers Association, Filipino Worker's News; is a member of the Filipino Photographers' Association; does interpretation for the HRD Service of Korea; and works as an emergency immigrant women consultant at the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Based on such diverse experiences, she's begun working as a Filipino communicator to help Filipino workers and marriage migrants. Recently, she's been working as a DJ of a music program on the radio to soothe the hearts of lonely and homesick Filipinos. All of these began while she

learned the Korean language.

"There was time when I couldn't speak Korean at all. Since then, I wanted to help my fellow Filipinos who have language barriers just like I did. Now look what I do.

### 나는 필리피노 커뮤니케이터

한국 거주 필리피노들에게 잘 알려진 이름이 있다. 제니 김(37)씨다. 그는 현재 필리피노 한국배우자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필리핀외국인근로자협회, 필리핀근로자신문, 필리핀사진동호회협회 등에서 활동한다. 더불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역을 하고 한국건강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주여성긴급상담원으로 일을 한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필리피노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는 그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돕고 있다. 특히 그의 목소리는 음악과 함께 전파를 타며 이국땅에서 생활하는 필리피노들의 외로움을 달랜다. 다문화음악방송 DJ로서 그의 역량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은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처음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못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처럼 언어로 곤란을 겪는 필리피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 Growing up as Gennie

Gennie Kim was born as Maria Genieve T. Varaara in Cebu, the Philippines, where she married her South Korean husband and gave birth to a son. In 2003, she came to South Korea with her son for his education, settled in Juan-dong, Nam-gu district, Incheon city, and began working at a factory. It was at that time when the language barrier hurt her so much.

"Not only Koreans hurt me, but also the fellow immigrants hurt me."

As language barriers caused misunderstandings between the Korean workers, she tried to be impartial. She knew that the immigrants and Korean workers did not hate each other; just that it was just a big misunderstanding. The huge language barrier, on the contrary, taught her the importance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That was when Gennie decided that she would devote herself to breaking down those barriers so that immigrants like her won't get hurt because of the language.

There were also cultural barriers. While the Filipinos and South Koreans share many similarities in culture, there are lots of differences as well. She hopes that the Filipino culture gains as much respect as the Korean culture. Understanding is all that is needed.

Her son is now 13 years old; spending 11 years in South Korea, she gained wide experience doing so many different kinds of work. As an English teacher, she tried to help the fellow Filipinos by doing interpretation for them and working at public offices. It boosted Gennie's growth, and inspired other "Gennies" as well.

### 제2의 제니를 만나며 성장하다

제니 김 씨는 필리핀 세부가 고향이다. 그곳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 2003년 아들의 교육을 위해 남편의 나라로 아들과 단 둘이 건너와 시어머니가 있는 인천 남구 주안동에 살았다. 공장에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말을 전혀 못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한국사람 뿐 아니라 같은 외국인에게도 상처 받았어요." 언어가 서로 잘 전달되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외국인들끼리 종종 다투기도 했다. 그럴 땐 그는 언제나 중립이었다. 서로 소통이 안된 것이지 미워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기억 속에서 언어로 인한 소통의 단절은 매우 컸다. 그래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 때 다짐했다. '한국에서 오래 생활해서 한국말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나 같은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힘들어했던 것을 돕고 싶다.'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의 차이도 있다. 두 나라 문화는 비슷한 점이 많지만 분명 다른 점도 있다. 이곳에 왔으면 이곳의 문화를 존중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필리핀 문화도 존중해 줬으면 하는 게 그의 생



Preparing for the broadcasting with PD 담당PD와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January 1, 2015 • DASA RANG

각이다. 그건 서로 조금씩 욕심을 버리면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두 살이던 아들은 어느덧 13살이 되었다. 그동안 그는 한국에서 많은 경험과 다양한 일을 했다. 영어 강사로 활동하며 한국말이 서툰 필리피노들을 대신해 통역을 하고 관광 서 일을 도왔다. 그가 모르는 부분은 이곳저곳에 문의해 불안해하는 필리피노들에게 도움을 전했다. 그 일들은 제니 김 씨를 성장시켰고 그 힘은 제2의 제니들에게 전달됐다.

### Working as a DJ at Multicultural Music Broadcasting

Gennie is still taking on new challenges. Her insatiable curiosity has led her to the DJ booth of multicultural radio broadcasting. Even on Christmas Eve, she records her program in a recording booth at Yeomni-dong, Mapo-gu, Seoul. The 'ON AIR' light keeps blinking. She hops onto the subway for the multicultural music programs for marriage migrants and foreign workers, four times per week.

"It's Christmas Eve. I'm going to play Christmas songs."

In the Philippines, people prepare for the Christmas season from September, for that season is the most important and festive time of the year. The festivities continue till New Year's Day, sharing food and having parties. Gennie is preparing to present some lively songs for her listeners.

Gennie joined the multicultural music radio program as a guest. The producer from the broadcasting company loved her voice, and gave her a namecard. After she found out that her predecessor was going back to the Philippines, she texted the producer, saying, 'Do you need another DJ?' She was curious about broadcasting, and she wanted to tell a lot of things to her fellow Filipinos. Since March 2013, she began working as a Filipino DJ at the Multicultural Family Music Broadcasting, co-operated by Woongjin Foundation and Digital Skynet. She prepares all her

materials from punchlines and audiences' stories to music selection, losing no time in public transport to search for the news and sharing them with her listeners. Everything she does goes into the program.

"I have information, and I have friends. It wasn't a difficult job."

Gennie's telephone in the DJ booth is open for all Filipinos, just as her heart is open for all the challenges here in South Korea. What an ON-AIR life!

### 다문화음악방송 DJ로 정보를 전하다

그의 도전은 언제나 진행형이다. 그 호기심은 다국적 DJ가 활동하는 다문화음악방송 DJ로 영역을 넓혔다. 지난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임에도 그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서 라디오방송을 녹음 중이다. 부스 밖의 'ON AIR'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한다. 다문화음악방송은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방송이다. 그는 매주 4회 방송을 위해 전철을 탄다.

"크리스마스 이브라 크리스마스 노래를 많이 들려 드릴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9월부터 준비한다.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며 축제의 기간이다. 음식을 나누고 파티를 하는 날이라 흥겨운 캐롤을 청취자들에게 선물할 계획이다.

그가 다문화음악방송과 인연을 맺은 것은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부터다. 목소리가 좋고 방송관계자로부터 칭찬과 함께 명함을 받았다. 필리핀 DJ가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알게 돼 보관하고 있던 명함의 방송관계자에게 문자를 넣었다. '혹시 DJ 필요하신가요?' 방송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던 그는 방송이 궁금했다. 또 필리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하고 싶었다. 그렇게



Gennie Kim, looking at the photo of herself and her son, and cheering up. 아들과 함께한 시간을 보며 힘을 얻는 제니김씨

2013년 3월부터 웅진재단이 디지털스카이넷과 운영하는 다문화음악방송의 필리핀 DJ가 됐다. 그는 방송에 필요한 멘트와 사연 선정, 선곡 등을 위한 모든 자료를 스스로 준비한다. 전철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투리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 뉴스를 검색하고 외국인들이 알았으면 하는 정보는 바로 간단하게 번역해서 그들과 공유한다. 그의 모든 활동은 방송에 응용된다. "사람과 정보를 이미 갖고 있었기에 방송이 어렵지 않아요." 필리피노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그의 전화는 적극적인 그의 삶만큼 항상 'ON AIR'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Photograph and article by Editor · Kim Min Young · gem0701@hanmail.net



### Traditional craftsmanship in Incheon | The Bojagi

## 'Bojagi' Wraps the Good Fortune

복(福)을 함께 싸다 '보자기'

Just like magic, a bojagi, or wrapping cloth, blossoms as it embraces anything. As the pliant bojagi wraps something, the thing becomes a secret only its receiver can enjoy, just like the newlywed bride wrapped in multiple layers of clothing for her groom to untie. And the giver wraps his or her wish of good fortune for the receiver as well.

Korea has its unique 'wrapping culture', of which the bojagi is part. Bojagi used to do what the modern wrappers and bags did: the cloth was used for wrapping babies and tying them up on the backs of their mothers, for carrying books, or for wrapping lunch boxes. The bojagi was used as covering as well: the cloth was put onto the table to protect the food from contamination, as it was used as a sunscreen, or even as an outdoor mat. The wrapping cloth even inspired the invention of ssam, the unique Korean cuisine that uses leafy vegetables to wrap meat or cooked rice. What a colorful metaphor!

마술이라도 부리듯 무엇이든 포~옥 감싸 안으며 보자기는 꽃을 피운다. 천으로 만든 보자기의 유연함으로 그 속에 싸인 내용물은 설레는 '비밀'이 된다. 첫날밤 새색시의 웃고름을 풀듯 조심스럽게 풀어내는 보자기의 손맛은 받는 이로 하여금 또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보자기를 싸는 손길에는 '복'도 함께 담으며 귀하게 전달된다.

우리나라 전통에는 '싸개문화'가 있다. 보자기는 그 싸개문화의 일부다. 포장지와 가방이 없던 시절로 거슬러 오르면 보자기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다. 그 쓰임새는 다양하다. 아이를 업고 곤히 잠을 재우던 포대기와 책을 말아 어깨에 둘러매기도 하고 도시락을 싸기도 했다. 밥상을 차려 놓고 음식 위의 덮개로도 사용했고 햇빛 가리개와 야외에서는 깔개로도 쓰였다. 싸개 문화는 '음식의 싸'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 그만큼 보자기의 출현은 다양한 문화를 만든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Photograph and article by Editor · Kim Min Young · gem0701@hanmail.net





# Cold Won't Bother History

## 추위도 비껴나간 역사의 장소

Incheon in the Museum 박물관에 '인천'이 있다

Winter holidays are too quiet for the children. They can't play at seaside or go outside like they did in summer. If they're bored to death in winter, maybe it's time to take them to museums, where everyone can enjoy rich history and stories of the past.

###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is the first public museum in South Korea, and offers brief history lessons about the city. The museum gained its popularity as a tourists' spot as the filming location of the drama, "My Love from the Star ("별에서 온 그대")." Its permanent exhibition shows various facets of the city's history. History Gallery 1 covers from the pre-historic era to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and the History Gallery 2 covers from the Joseon Dynasty to modern Korea, and presents various artifacts from historic sites of the Incheon Area. The Craftworks Gallery features earthenware of the Three Kingdom period to the white celadon and wooden furniture of the Joseon Dynasty, and various craftworks related to Buddhism. Opposite of the Craftworks Gallery holds the Jade Hairpin from the drama, "My Love from the Star."

Out of the Craftworks Gallery, you can find Special Exhibitions Gallery, where special exhibitions with various themes take place. In the Gallery, a special exhibition called "Chinese, the Old Neighbors"



will be held until February 1. There's also a 'Small Gallery' at the small place near the Special Exhibitions Gallery, where small theme exhibitions are held. However small they may be, they're just as important to see as the bigger exhibitions.

#### • Opening Hours

9 a.m.~6 p.m. (Closed every Monday, national holidays, and proper Seol and Chuseok holidays)

• Address #26, 160-beon-gil (Ongnyeon-dong), Cheongnyang-ro, Yeonsu-gu district, Incheon, South Korea

• Information +82-32-440-6750~1

### 인천시립박물관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 박물관은 인천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열풍을 불고 온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지로 관광객들에게도

여행코스도 자리 잡았다. 인천시립박물관은 상설전시로 인천의 역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준다. 역사 1실은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인천에서 발굴된 유물을 중심으로, 역사 2실에서는 조선시대부터 근대기까지 인천의 생활모습을 유물, 모형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인천의 역사 이외에도 공예실에서 삼국시대 토기부터 조선백자까지의 도자 유물과 불교공예, 조선시대 목가구 등을 전시 중이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지이기도 하며, 공예실 맞은편으로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옥비녀'가 전시돼 있다.

공예실에서 이어지는 기획전시실은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이 열린다. 오는 2월 1일까지는 <2014기획특별전> '오래된 이웃, 화교'가 전시된다. 또한 기획전시실 옆 틈새공간에 마련된 '작은 전시실'은 대형 박물관에선 보기 힘든 소규모의 테마전시가 열린다. 개성 넘치는 주제로 가득 채워진 작은 공간도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 중 하나다.

####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관)

#### • 주소

인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옥련동)

• 문의 : (032)440-6750~1

### Sudoguksan Museum of Housing and Living

The Sudoguksan Museum of Housing and Living recreates the old housings of the 1960s and 70s, built near the Sudoguksan, then a slum district, or a Daldongne of Incheon. Originally called Songnimsan or Mansoosan, the mountain was named Sudoguksan as the water reservoir was established in the late 19th century. Take your time to wander through the narrow but warm alleys of the district.

#### • Opening Hours

9 a.m.~6 p.m. (Closed every Monday, national holidays, and proper Seol and Chuseok holidays)

• Information +82-32-770-6130~4

###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1960년, 70년대 인천의 달동네인 수도국산의 옛 모습을 복원해 놓았다. 고단하지만 그래서 더 추억이 된 그 시절, 사람냄새가 나던 수도국산 달동네의 골목 골목이 그곳에 펼쳐진다. 본래 송림산 혹은 만수산이라 불리던 지명은 근대 개항기, 이곳에 수도물을 담아두는 배수지를 설치하며 '수도국산'으로 바뀌었다.



####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관)

### Nokcheongja Museum

The Nokcheongja, or the green celadon is one of the precious artifacts that gives a glimpse of the past. The History Gallery introduces the green celadon artefacts, as well as their manufacturing process; and the Special Exhibitions Gallery shows the beauty and practicality of the modern celadons. The museum also offers education courses and experiences, including 'Regular Pottery Training Courses', and 'One-day Pottery Experience Courses'.

#### • Opening Hours

9 a.m.~6 p.m. (Closed every Monday, national holidays, and proper Seol and Chuseok holidays)

### 녹청자박물관

녹청자는 1000여 년 전 선조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유물이다. 발굴된 녹청자 관람과 함께 도자기의 제작과정을 볼 수 있는 역사전시실과, 현대도예를 전시하는 기획전시실에서 도자기의 멋과 생활상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도예정규교육과정'과 '도예일일체험과정'으로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위주의 학습장소다.



####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관)

글·사진 차지은 기자

Photograph and article by Cha Ji Eun · minsable@hanmail.net



# A Boolsechul Break in the City

## 불세출의 도시풍류



'Coffee Concert' is a monthly matinee concert held at 2:00 p.m. every Wednesday, with a fresh cup of coffee that every audience member rated as the best feature. The first Coffee Concert of the year 2015 is for the traditional Korean music ensemble, the Boolsechul Ensemble. Eight players of the Gayageum, Geomungo, Daegeum, and Piri, etc, gives you the groove of Sinawi of the original and impromptu traditional Korean music of the minyo and sanjo.

- Date (Ballet): January 21 (Wed), 2:00 p.m.
- Venue: Auditorium of the Incheon Culture-Art Complex
- Tickets: 15,000 won for all seats

'커피콘서트'는 매달 한 번,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Matinee Concert)다. 비교적 적은 가격과 갓 뽑은 신선한 커피는 관객이 뽑은 커피콘서트만의 매력이기도 하다. 2015년 '커피콘서트'의 첫 무대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등 여덟 명의 연주자가 모인 국악앙상블 '불세출'이 시나위의 감성을 펼친다. 민요, 산조 등 전통음악의 고유성과 즉흥을 기반으로 오늘의 감성에 맞는 음악을 들려준다.

- 일시: 1월 21일(수) 오후 2시
-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전석 15,000원



## Monni's Band Day

### 밴드데이의 몽니

Monni ('몽니') is a sentimental rock band with appealing vocals, skillful players, and unique characteristics. Their music consists of strong melody and tender lyrics that appeal to a wide range of audiences, from teenagers to older generations in their 40s. The songs of love, everyday life, and colorful emotions, will please listeners all the more.

- Date: January 23 (Fri), 8:00 PM
- Venue: Auditorium of the Incheon Culture-Art Complex
- Tickets: 20,000 won for all seat

호소력 짙은 목소리, 탄탄한 연주력, 뚜렷한 개성을 지닌 멤버들 간의 끈끈한 호흡을 자랑하는 몽니는 강렬한 사운드와 대조되는 부드럽고 따뜻한 노랫말로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팬층을 확보한 감성 록밴드다. 애절한 사랑이야기부터 다양한 일상의 감정까지, 각양각색의 감성을 담아내고 있는 몽니의 노래는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를 품어 듣는 이를 더욱 즐겁게 한다.

- 일시: 1월 23일(금) 오후 8시
-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전석 20,000원



## Yoonhan's Concert, 'New Year's Party'

### 윤한 콘서트 'New Year's Party'

Dedicated pop-pianist Yoonhan presents rearranged jazz classics like 'Someday my prince will come' by Frank Churchill, 'I'll be seeing you' by Sammy Fain, and rich soul jazz music with the ensemble of piano, contrabass, and trumpets. His own unique music will be presented like a movie, showing off its perfection to all the audiences.

- Date: January 24 (Sat), 7:00 PM
- Venue: Auditorium of the Incheon Culture-Art Complex
- Tickets: 30,000 won for all seat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Enticket at 1588-2341

자신의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공연을 하는 팝피아니스트 윤한은 이번 무대에서 'Someday my prince will come(Frank Churchill)', 'I'll be seeing you(Sammy Fain)' 등 직접 편곡한 재즈 명곡을 비롯해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트럼펫의 풍부한 소울 재즈 등을 선보인다.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모든 부분에 완벽을 기한 음악을 통해 들려줄 윤한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

- 일시: 1월 24일(토) 오후 7시
-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전석 30,000원
- 문의: 엔티켓 ☎1588-2341

# Calendar January

14 wed

**'My Body Is Precious', A sex educational musical for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 Grand Theater of the Seo-gu Culture Center
- 10:40 AM
- 15,000 won
- ☎ 580-1135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뮤지컬 '내 몸은 소중한데'**

-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오전 10시40분
- 전석 1만5천원
- ☎ 580-1135

17 sat

**Pororo Dream Concert**

- Auditorium of the Incheon Culture-Art Complex
- 11:00 AM / 2:00, 4:00PM
- 35,000 won for all seats
- ☎ 1566-6551

**뽀로로 드림콘서트**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전 11시 / 오후 2시, 4시
- 전석 3만5천원
- ☎ 1588-2341

18 sun

**Pororo Dream Concert**

- Auditorium of the Incheon Culture-Art Complex
- 11:00 AM / 2:00, 4:00PM
- 35,000 won for all seats
- ☎ 1566-6551

**뽀로로 드림콘서트**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전 11시 / 오후 2시, 4시
- 전석 3만5천원
- ☎ 1566-6551

21 wed

**2015 Coffee Concert I, 'A Boolsechul Break in the City'**

- Auditorium of the Incheon Culture-Art Complex
- 2:00 PM
- 15,000 won for all seats
- ☎ 1588-2341

**커피콘서트 I '불세출의 도시풍류'**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 ☎ 1588-2341

21 wed

**'Farting Competition', a puppet musical**

- Grand Theater of the Seo-gu Culture Center
- 10:40 AM
- 15,000 won for all seats
- ☎ 580-1135

**인형 뮤지컬 '방귀시합'**

-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오전 10시 40분
- 전석 1만5천원
- ☎ 580-1135

22 thu

**New Year's Concert of the Vienna Boy's Choir**

- Sorae Theater (Grand Performance Hall) of Namdong Sorae Art Hall
- 7:30 PM
- 50,000 won for R seats, 30,000 won for S seats
- ☎ 453-5710

**신년음악회**

-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소래극장)
- 오후 7시30분
- R석 5만원, S석 3만원
- ☎ 453-5710

22 thu

**2015 Bupyeong Art Center New Year's Concert**

- Haenuri Theater of Bupyeong Art Center
- 8:00 PM
- 50,000 won for VIP seats, 40,000 won for R seats, and 30,000 won for S seats
- 20,000 for partial view seats
- ☎ 500-2000

**2015 부평아트센터 신년음악회**

-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 오후 8시
-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시아장석 2만원
- ☎ 500-2000

23 fri

**Monni's Band Day**

- Auditorium of the Incheon Culture-Art Complex
- 8:00 PM
- 20,000 won for all seats
- ☎ 1588-2341

**밴드데이, 몽니**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후 8시
- 전석 2만원
- ☎ 1588-2341

24 sat

**Yoonhan's Concert, 'New Year's Party'**

- Auditorium of the Incheon Culture-Art Complex
- 7:00 PM
- 30,000 won for all seats
- ☎ 1588-2341

**윤한콘서트 'New Year's Party'**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후 7시
- 전석 3만원
- ☎ 1588-2341

25 sun

**'Treasure Island', a family musical**

- Auditorium of the Incheon Culture-Art Complex
- 2:00 / 4:00 PM
- 30,000 won for all seats
- ☎ 070-5017-1551

**가족뮤지컬 '보물섬'**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후 2시 / 4시
- 전석 3만원
- ☎ 070-5017-1551

28 wed

**'Dingdongi Chikapuka', a dental health education musical**

- Grand Performance Hall of Seo-gu Culture Center
- 10:40 AM
- 15,000 won
- ☎ 1588-1135

**구강교육 뮤지컬 '딩동이 치카푸카'**

-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오전 10시40분
- 1만5천원
- ☎ 580-1135

30 fri

**69th Regular Performanc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Theater Company 'Medea Nature'**

- Auditorium of the Incheon Culture-Art Complex
- 7:30 PM
- 20,000 won for adults, 10,000 won for teenagers and children
- ☎ 1588-2341

**인천시립극단 제69회 정기공연 '메데아 네이처'**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후 7시30분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 ☎ 1588-2341

31 sat

**69th Regular Performanc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Theater Company 'Medea Nature'**

- Auditorium of the Incheon Culture-Art Complex
- 7:30 PM
- 20,000 won for adults, 10,000 won for teenagers and children
- ☎ 1588-2341

**인천시립극단 제69회 정기공연 '메데아 네이처'**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후 7시30분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 ☎ 1588-2341



# Incheon Will Be Safer and Nicer in 2015

## 안전하고 쾌적한 인천 위해 이렇게 달라진다

There are lots of changes awaiting Incheon citizens in the year 2015 for safer living conditions, stable business conditions, and a wider range of education and welfare for more people. Let's find out more about it!



▲ **Incheon POSCO Academy Opening** The Incheon POSCO Academy, the second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of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will open on March 2015. The Academy will select its 240 students from the Incheon area, and will operate eight classes.

▲ **인천포스코고등학교 개교** 인천에서 두 번째인 자율형 사립고 인천포스코고가 3월에 송도 국제도시에 개교한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8학급 240명 규모로 선발했다.

▲ **Residents Registration possible for the Nationals Abroad** The Korean Nationals Abroad (NAs), or the nationals who live outside South Korea can be issued with ID cards, or Residents Registration cards, if they stay in the country for more than 30 days. Unregistered NAs can re-register as residents; and those who never had RR records in South Korea can register for the ID card after arrival. The RR ID cards can be issued in South Korea for NAs above the age of 17, by the request of the said NA either on the arrival in or departure from South Korea.

▲ **재외국민 주민등록 가능**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금년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방법은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귀국 후 재등록하고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귀국 후 최초 등록하면 된다.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 입국 시에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국외이주자가 출국 전 신청할 때도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 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은 17세 이상부터가 대상이다.



▲ **Childbirth Expenses Support for More Disabled Women** More disabled women will get financial support for the childbirth, as the women with 1st to 6th degree disabilities will receive funding of 1 million won, based on a total increase of the funding from approximately 40 million won to 121 million won.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 대상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된다.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의 지원금은 종전과 같지만 총 예산이 4천만원에서 1억2천100만원으로 늘어 수혜 대상이 늘어난다.

▲ **Increased Childcare Support for Single Parent Families with Low Income** Child-care Support will be increased from 70,000 won to 100,000 won for single parent families with low income. Appr. 5,400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are applicable. Monthly support for adopted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will be increased to 150,000 won, in order to lighten the burden of adopting families nationwide. Submit the application form to the governors and heads of your residential district to receive the supports.

인천시는 올해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무엇보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업을 펼치며 장애수당을 늘리고, 장학금 확대 등 교육기반을 확충한다. 2015년 올미년 시민생활 중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수당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금액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미만의 아동, 5천 400명이다. 국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만 15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입양양육 수당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인당 월 15만원으로 거주지 군수,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면 된다.

▲ **More Universities Offer Scholarships and Mentoring Programs** Global Leader Cultivation Scholarship will be offered for top 4% of students, and Dream · Hope Scholarship for 77% of students, which increased from top 3% and 77% respectively. Yonsei University, Inha University, Incheon University, and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ill offer mentoring programs for 1,200 students as well.

▲ **장학금·멘토링 참여 대학 확대**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을 작년 전체 상위 3%에서 상위 4%로, 드림·희망 장학금은 작년 50%에서 77%로 성적 범위를 넓힌다. 멘토링 참여대학도 4개 대학으로 연세대, 인하대, 인천대, 경인교대다. 멘토 학생 수는 1천 200명으로 늘어난다.

▲ **Support Program for Families of Suicides** Incheon Suicide Prevention Center will run 'Embrace Your Heart' Project to heal pain and grief of the families of the suicides. The project involves 330,000 won of condolences fee, and additional psychological therapy expenses of 50,000 won, as well as counseling programs for the remaining family members.

▲ **자살 유가족 지원 사업 시행** 인천시자살예방센터는 가족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심정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마음 안아주기'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가족 애도비로 33만원과 월 5만원의 심리 치료비가 지원된다.



▲ **Opening of Yeongjong Station for Airport Railroad** Yeongjong Station will be opened between Cheongna International City and Unseo stations of the Airport Railroad, facilitating public transportation for the Yeongjongdo Island residents, including those of Yeongjong Sky City.

▲ **공항철도 영종역 개통** 12월 공항철도 청라역과 운서역 사이에 영종역이 개통된다. 영종하늘도시 입주민 등 영종도 주민의 교통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 **Free Collection of Large-Scale Home Appliances Wastes** Discard of large scale home appliances will be free of charge in 2015, and logistics teams of the Recycling Center will visit houses for collection. The large scale home appliances should be discarded after buying receipt stickers for the discarding fee and attaching them to the surface of the appliances. The discarded appliances will be collected on request at the webpage (15990903.or.kr) or through the call center (1599-0903).



▲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시행** 대형폐가전제품 배출 때 수수료를 받았지만 내년부터 재활용센터 운반전담반이 직접 가정을 방문, 무상 수거한다. 지난해까지는 높이 1m 이상의 폐가전을 버릴 경우 군·구청에 신청한 뒤 유상스티커를 구입해 배출해야 했다. 시는 올해부터 인터넷 홈페이지(15990903.or.kr)나 콜센터(1599-0903)로 신청할 경우 무상으로 대형 폐가전을 수거하는 사업을 벌인다.



▲ **More Benefits for the Self Car-free Day Participants** Participants of the Self Car-free Day will get discounts for general medical tests in medical organization. Other benefits include 3% discount on automobile taxes, 7% discount on public transportation, up to 120 points for charging at SK Energy stations, and 5~10% discount for the charges of the affiliate shops.

▲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 혜택 확충** 승용차선택요일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이 추가로 더해진다. 그 외 혜택으로는 자동차세 3% 추가 할인, 대중교통요금 최고 7%할인, SK에너지 주유시 최고 120포인트 적립,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5~10%가 할인된다.

▲ **SafeMap Service for the Entire Incheon Area** SafeMap for the entire Incheon Area will be offered via the webpage (www.safemap.go.kr) and as a smartphone application via Google Playstore (for Android OS) or at AppStore (for iOS), providing safety information including transportation, disaster, traffic safety for children, and safe nightwalk for women.

▲ **전 지역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지도'가 서비스된다. 주로 교통·재난·치안이나 어린이교통안전, 여성밤길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홈페이지(www.safemap.go.kr)를 보거나,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생활안전지도'를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 **Sectional Opening of Suin Line from Songdo Station to Incheon Station** Part of the Suin Line from Songdo Station to Incheon Station (total length 7.4km) will be opened in December this year. The Suin Line has opened its 13.1km long section from Oido to Songdo Station in 2012.

▲ **수인선 송도역~인천역 개통** 12월 수인선 송도역~인천역 7.4km가 개통된다. 2012년 오이도에서 송도까지 13.1km가 개통한 데 이어 수인선이 완전 개통된다.

▲ **Condition Changes in Public Works** There are major changes in the conditions of Public Works, which offer jobs to the unemployed. From this year, the participants will work 5 days a week for 3 months, and receive 27,900 won for 5 hours of daily work. Any Incheon residents who is over 18 and has asset under 135 million won is applicable, and primary jobs will include human resource supports for SMEs, improvements for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after care of public work organizations, and resolving youth unemployment problem.

▲ **공공근로사업 근무조건**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의 근무조건이 변경된다. 올해부터 바뀌는 근무조건은 주5일 5시간, 근무기간은 3개월, 임금은 1일 2만7천 900원으로 조정되고 참여자격은 각 단계별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인천시 시민으로 재산은 1억3천5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실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공공근로사업장 사후관리 사업 등이 일자리 우선 추진사업으로 진행된다.

▲ **Safety Enhancement in Underground Stations Area** The first fixed mobile convergence (FMC) disaster and safety forecasting & warning system will be established underground multiuse facilities near the Bupyeong Station, for fast evacuation in emergency and disaster. The Bupyeong Station Disaster & Safety Forecasting and Warning System will enable fast and organized disaster response by offering real-time evacuation warning and forecasts, sending text messages real-time to administrators and shop owners, supporting disaster trainings, prompt response of the responsible organizations, and clearing the site of disaster by guiding possible evacuation routes.

▲ **지하 역세권에 안전관리 강화** 부평역 등 지하로 연계된 다중이용 시설에 신개념 유무선 기술을 융합한 재난·안전 통합 예·경보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구축된다. 예·경보시스템의 구

축으로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됐다. 부평역세권 재난안전 예·경보 시스템은 화재 등 재난·위기 상황 발생, 실시간 대피 경보·방송, 관리자·점주 실시간 문자, 전송·훈련 등 재난대응 정예화, 재난 대응기관 신속한 출동발령, 쇼핑·환승 등 안전한 지하공간 조성이 가능해졌다.

▲ **Increase in Disability Allowance** Disability Allowances will be increased 10,000 won than last year to stabilize living conditions for families with disabled members and low income. Any registered people with light degree of disability (3~6 degree) and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or in the Near Poverty status, is applicable. As a result, NBLS recipients at home will receive 40,000 won, people in near poverty 40,000 won, and NBLS recipients at care facilities will receive 20,000 won.

▲ **장애수당 인상**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경증장애인(3~6급)중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단가는 기초수급자(일반재가) 4만원, 차상위계층 4만원, 기초수급(보장시설) 2만원이다.



▲ **Smoking Banned in All Restaurants** All restaurants, regardless of their size, will be non-smoking zones, as well as billiard halls and screen golf fields. Penalties of 100,000 won will be enforced not only for smoking tobacco products, but also for smoking electronic cigarettes.

▲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되는 것은 물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금연이 추진된다. 일반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된다.

▲ **Different Range of Duties for Beauticians** Range of duties will differ for the beauticians according to their date of license acquisition. Any beauticians who received their licenses from January 2008 to April 16, 2015, can perform 'trimming and makeup of hand and toe nails', while beauticians who received their licenses after April 17, 2015, cannot perform the said duties.

▲ **면허 취득일로 미용사 업무범위 달라진다** 미용사의 국가기술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업무범위가 달라진다. 2008년 1월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이 업무범위에 포함되고, 2015년 4월 17일 이후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이 제외된다.



▲ **Air-Pollution Warning for Wider Region** Air-Pollution Warning will be prompted when the increased level of microdust can have negative effects on citizens' health and assets, while hindering growth of animals and plants. Warning criteria will be divided into PM-10 and PM-25 for more refined warning to protect citizens' health.

▲ **미세먼지 경보제 권역 확대** 미세먼지 경보제는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시행한다. 경보시행 농도는 미세먼지 PM-10과 PM-25로 나뉘 주의보와 경보 기준을 더 세밀하게 확대해 시민들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



# Incheon Now

## 지금, 인천은

### Roundtable Conference between Incheon City Gov't and Citizens



The 1st Roundtable Conference of Citizens of Incheon was held on December 18, 2014, at the Main Hall of Incheon City Hall. The 350-member panel included citizens of Incheon, as well as opinion leaders recommended by the academic, economic, industrial, cultural,

social welfare, and educational communities.

The theme of the conference was "You are the Masters of Incheon City," which aimed to collect opinions on manifest of the 6th elected mayor, and to prioritize the pledge of "the most urgent projects,"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 will do as a mayor."

Hosted by Mayor Yoo, the Roundtable Conference promoted specific plans pledged by the 6th elected city government and listened to the voices of the citizens and reflected their inputs in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its general policy. The panels gathered around 30 tables and debated over the theme for 30 minutes, after Mayor Yoo's presentation of the manifest.

### 인천시, 시민과 함께 원탁 회의

지난 12월 18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지역 오피니언과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인천 시민 원탁회의가 열렸다. 토론자는 지역사회의 학계, 경제·산업계, 문화·복지계,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 추천과 직접 홈페이지에 접수한 시민 등 총 350명으로 구성됐다.

토론의 주제는 '당신이 인천의 주인입니다'로 민선 6기 공약실천계획을 들고 소주제인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와 '내가 시장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토론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주재한 이번 원탁회의는 민선 6기가 수립한 공약 세부실행계획을 알리고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공약실천계획은 유정복 시장이 직접 시민에게 발표하고 이후 100분간 10명씩으로 구성된 30개 테이블별로 시민토론이 진행되었다.

### First Enactment of the Advanced Personnel Changes Notifications.

Incheo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notified its changes in personnel last December, in advance of its actual enactment on January 1st 2015. Advanced Personnel Changes Notifications discloses changes in personnel assignment in advance of its actual enactment and communicates with the personnel to give them chances to express their opinions on the arrangements. Merit Promotion Program was applied for a wider range of personnel.

Incheo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is the first regional government that adopted the Advanced Personnel Changes Notifications and Merit Promotion Programs to establish a clear and just personnel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abilities of each official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organization.

### 인천시 인사예고제 첫 시행

인천시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인사를 단행하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인사예고제를 시행했다. 인사예고제는 정식 인사발령 전에 인사 변동사항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부에선 인사권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사예고제와 더불어 희망보직제도 확대 시행했다. 인사예고제와 희망보직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인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능력만을 인사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뜻을 담았다.

### Pyeongondang is the Name of the New Charnel House.



Incheo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notified its changes in personnel last December, in advance of its actual enactment on January 1st 2015. Advanced Personnel Changes Notifications discloses changes in personnel assignment in advance of its actual enactment and

communicates with the personnel to give them chances to express their opinions on the arrangements. Merit Promotion Program was applied for a wider range of personnel.

Incheo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is the first regional government that adopted the Advanced Personnel Changes Notifications and Merit Promotion Programs to establish a clear and just personnel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abilities of each official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organization.

### 봉안당의 이름은 '평온당'

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인 신규 봉안당의 명칭을 '평온당'으로 최종 선정했다. 평온당은 인천가족공원 내 추모의집, 금마총, 만월당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신축된 4번째 봉안 시설이다. 연면적 5425.08㎡, 지하 1층~지상3층, 안치기수 3만5584기의 규모로 건축 외관은 강화 고인돌을 형상화했으며 2012년 5월 착공해 올해 2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신축된 평온당이 개장하면 인천가족공원은 총 9만 4425기의 봉안능력을 갖추게 된다

김민영 편집장

Kim Min Young Chief Editor · gem0701@hanmail.net



## Contact Information of Multiculture-related Organizations in Incheon

### 인천시 다문화관련기관 연락처

#### Multicultural Policy Department, Incheon City Hall

인천시청 다문화정책과 ☎ 032-440-2866  
7F, Park Avenue Bldg., 1135-11, Guwol-dong, Namdong-gu, Incheon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5-11 파크에비뉴빌딩 7층

#### Ju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91-1094  
4F, Dapdongsinhyup Bldg., 122, Jemulryang-ro, Jung-gu, Incheon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22 답동신협빌딩 4층

#### Gyeonga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41-2860-1  
3F, Community Welfare Center, 5, Gyeongangsan-ro 102beon-gil, Gyeongang-gu, Incheon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사회복지회관 3층

#### Nam-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75-1577  
5F, 189, Soseong-ro, Nam-gu, Incheon (Hagik-dong)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89 5층 (학익동)

#### Namdo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467-3912  
59-21, Jangseung-ro, Mansu6-dong, Namdong-gu, Incheon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장승로 59-21

#### Bupyeo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11-1800  
539, Gilju-ro, Bupyeong-gu, Incheon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 Yeonsu-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51-2740  
109, Cheongneungdae-ro, Yeonsu-gu, Incheon (4F, Top Pion Bldg.)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09 (탑피온빌딩 4층)

#### Seo-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69-1560  
6, Gyeongmyeongdae-ro 693beon-gil, Seo-gu, Incheon  
(305-13, Gongchon-dong)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693번길 6 (공촌동 305-13)

#### Do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773-0297  
21, Hwadojin-ro 44beon-gil, Dong-gu, Incheon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44번길 21

#### Ganghwa-gu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 933-0980  
11-1, Bukmun-gil, Ganghwa-eup, Ganghwa-gun, Incheon  
인천광역시 강화읍 북문길 11-1

#### Incheo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 032-431-5757  
12F, Myeongjin Plaza, 636-3, Nonhyun-dong, Namdong-gu, Incheon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6-3 명진프라자 12층

#### Incheon Hannuri School

인천한누리학교 ☎ 032-442-2102-4  
Incheon Hannuri School, 640-2, Nonhyun-dong, Namdong-gu, Incheon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0-2 인천한누리학교